



영광군, 섬 지역 농기계 수리 및 폐농기계 수거

폭염 속 송이도·안마도서 순회수리 봉사



영광군에서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낙월면(송이도, 안마도)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및 폐농기계 수거와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섬 지역 농기계 순회수리는 적기 영농작업에 농기계 사용이 필수적이며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농기계사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

나 지역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고 제때 농기계를 수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농기계 순회수리 및 폐농기계 수거와 안전교육 실시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치질 없는 영농추진에 기여하였다.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순회수리로 섬 지역

농업인들이 기계화 영농에서 소외 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농기계 순회수리 중점대상 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동력분무기 등 평소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기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수리 중 간단한 농기계고장은 농업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하였다.

사용 전 점검을 통해 고장원인과 조치요령을 숙지시켜 농업인들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기계 사고의 사전예방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또한, 낙월면에 폐농기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농기계를 수거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섬 지역에도 농기계 보급이 늘어나는 실정에 마땅히 수리할 곳이 없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자가 수리능력을 숙지하여 농기계의 잣은 고장으로 인한 영농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관 기자

고흥군 ‘치매안심 공부하는 마을’ 운영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최근 자체 제작한 책자를 이용하여 ‘치매안심, 공부하는 마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치매 예방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단위 신청을 받았다.

올해는 금산면 일정마을 등 30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결과에 따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안심, 공부하는 마을’ 책자는 소통, 공부하기, 어울림으로 나뉘며 매일 치매예방 악속과업을 주어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예방 악속과업은 소통부분

에서는 홀로사는 이웃과 점심식사하기·자녀에게 먼저 전화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공부하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의 최종학령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숫자와 단어 쓰기·구구단 외 우기·일기쓰기 등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어울림 부분에서는 친구와 등네 30분 걷기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 농촌지도자회-귀농어귀촌협의회 멘토링제 협약

함평군 농촌지도자회와 귀농어귀촌협의회가 20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멘토링 협약식을 개최하고 귀농인들의 지역사회 성공적인 정착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약식에 앞서서는 농부증 예방 안전교육과 유용미생물 사용법 등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 논 턱작물

재배 및 관리요령, 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PLS)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함평군 농촌지도자회장은 “작물재배기술은 물론, 문화자리에 따른 주민 간 갈등 해소 등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여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모았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군에서도 귀농인들이 지역공동체에 빨리 녹아들어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지도자회(회장 이상)는 농업현장에서 지역의 핵심적인 리더역할을 하는 전문농업인단체로 4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기(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개선·명예사직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청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

구례군 문척면, 초등생 대상으로 ‘금연 서약식’ 가져



설진강변 오산과 사성암의 고장인 구례군 문척면은 지난 20일 관내 문척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서약식을 가

졌다.

이날 서약식은 금연 영상물 상영과 전문강사 강연에 이어 평생 금연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금연 강연은 관내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례군 보건의료원 황영주 강사가 맡았으며, 이아름 눈높이 강연으로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받았다.

학생들은 흡연이 만병의 근원임을 깨닫고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평

생 금연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서명한 서약서는 학부모에게 전달하였다.

정양조 문척면장은 “서약서 작성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몸이다”며, “평생 금연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동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보성군, 전 군민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폭염피해 예방 위한 행동요령 홍보 병행

보성군에서는 지역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개 읍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통, 소방, 생활안전, 건강체조,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폭염피해 저감 홍보물인 리플릿, 퀄스카프, 물티슈, 부채 등을 배부하고 있으며, 폭염대비 군민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낮 12시 ~ 5시 사이 아외활동과 작업 자제하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는 피하고 창문이 깊은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훌로 남겨두지 않기 ▲야외 활동·작업 중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갖기 ▲농가·축사에서는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또한 폭염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즉시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 탈의하기 ▲목, 겨드랑이 등에 생수병 등을 대거나 물을 뿌려 체온 식혀주기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의 지속적인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군민들께서도 폭염대비 군민행동요령에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여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성군, 고려시멘트 앞 도로 4차선 확장 이어 경관 개선



장성군은 총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2016년 10월부터 고려시멘트 앞 진출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경관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성을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완료한 장성군은 곧바로 장성을 진출입로로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 사업 미무리를 앞두고 있다.

장성군은 진출입로로 담장을 장성 8경(백양사, 축령산·백운사, 장성호, 남장계곡, 흥길동데미파크, 훨암서원, 입암산성, 금곡영화마을)과 장성 9품(사과, 단감, 포도, 배, 토마토, 딸기, 새송이버섯, 복분자, 오디)의 워드마크와 이미지를 부착했다.

또 담장을 따라 황동을 형상화한 노란 선과 장성의 비전을 뜻하는 문구를 표현했다.

장성을 삼기동의 한 주민은 “장성을 전체 도로의 환경이 물리될 만큼 좋아졌다”라면서 “특히 좋은 데다 공장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차가 많이 오기는 텃에 위험했는데 도로가 안전해지고 예뻐져 아주 좋다”고 말했다.

장성을 삼기동의 한 주민은 “장성을 전체 도로의 환경이 물리될 만큼 좋아졌다”라면서 “특히 좋은 데다 공장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차가 많이 오기는 텃에 위험했는데 도로가 안전해지고 예뻐져 아주 좋다”고 말했다.